



오연수 중학교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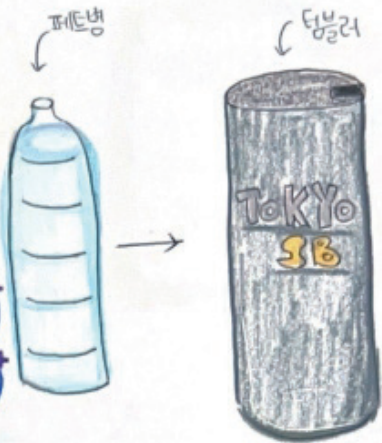
<알회평을 거절하는 나!>

2024년 7~8월 31~3일 금.토.일요일

날씨 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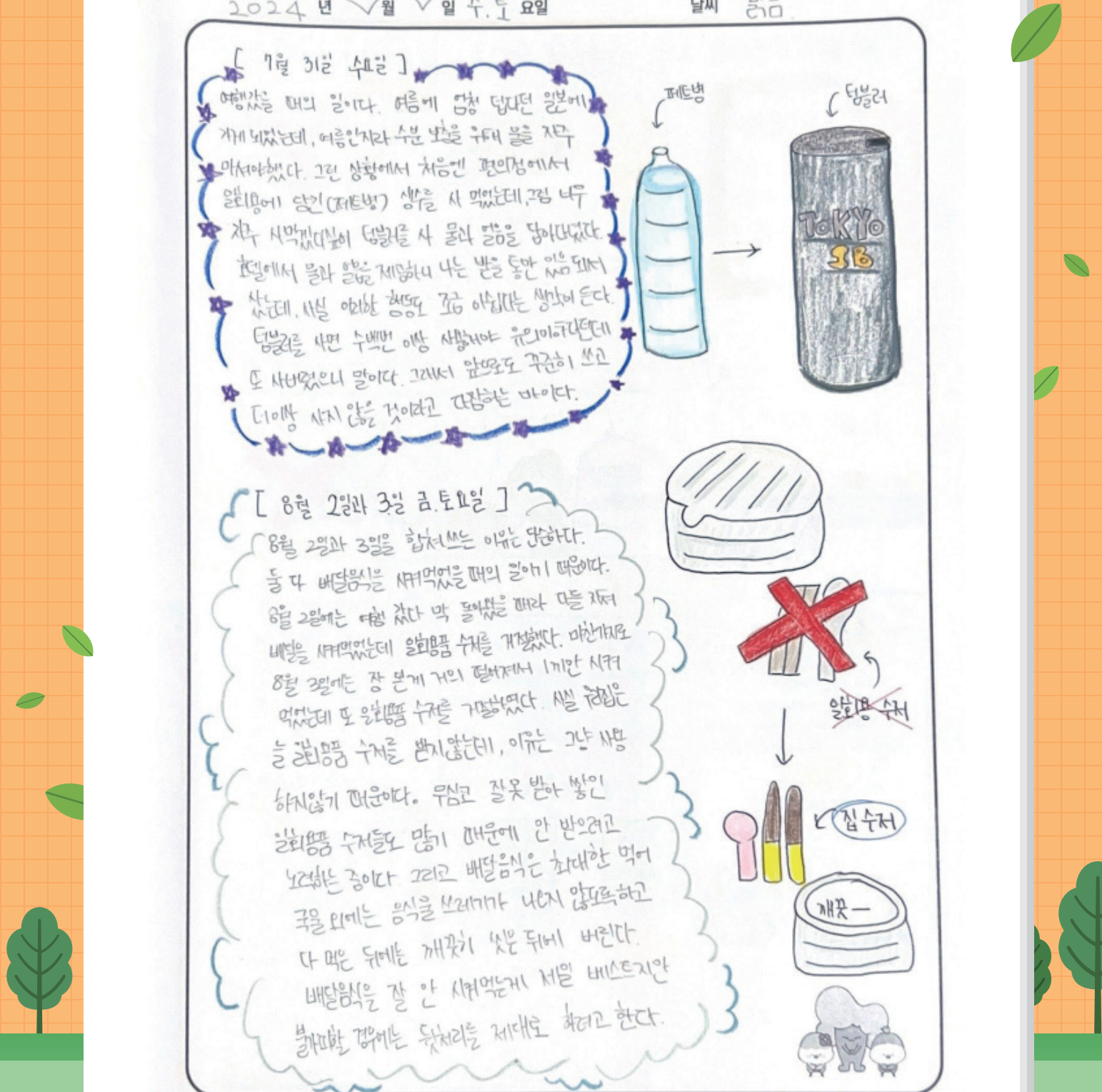
[7월 31일 수요일]

여행갔을 때의 일이다. 여름에 엄청 덥던 일박에
 가게 되었는데, 여름인줄라 수분 보충을 위해 물을 자주
 마셔야했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엔 편의점에서
 알회평에 담긴(페트병) 생수를 사 먹었는데, 정말 너무
 자주 사먹었다. 물이 텅텅을 사 물과 맛을 담겨있다.
 현장에서 물과 알을 제맛하니 나는 물을 동안 음 되서
 샀는데, 사실 알회 평 정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텅텅을 사면 수백번 이상 사먹어야 유익하다는데
 또 사버렸으니 말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쓰고
 더 이상 사지 않을 것이라곤 다짐하는 바이다.



[8월 2일과 3일 금.토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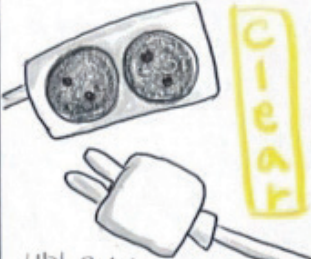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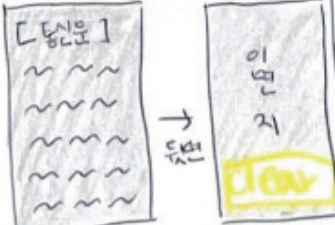


8월 2일과 3일을 합쳐쓰는 이유는 많하다.
 둘 다 배달음식을 시켜먹었을 때의 일기 때문이다.
 8월 2일에는 여행 갔다 막 돌아왔을 때라 딸들 자러
 배달을 시켜먹었는데 알회평 수저를 거절했다. 마찬가지로
 8월 3일에는 장 본게 거의 절반에서 1개만 시켜
 먹었는데 또 알회평 수저를 거절했다. 사실 현실은
 늘 알회평 수저를 쓰지 않는데, 이유는 그냥 사탕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임코 잘못 받아 뿔인
 알회평 수저들도 많이 때문에 안 받고
 노력한 중이다 그리고 배달음식은 최대한 먹어
 국물 외에는 음식을 쓰레기가 내지 않도록 하고
 다 먹은 뒤에는 깨끗이 씻은 뒤에 버린다.
 배달음식을 잘 안 시켜먹을게 제일 베스트지만
 불의지행 경우에는 똥치료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





< 환경 선견을 모두 실천하는 나! >
 지면이
 날씨 good ~

2024년 7월 8일 월요일

<p>1. [양치컵 이용하기] Clear!</p>  <p>나는 그냥 관해서 양치컵을 사용하는 건데 이 행동이 환경에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알고보니 앞으로 물을 아끼기 위해 양치컵을 사용해야겠다.</p>	<p>2. [안 쓰는 플러그 뽑기] Clear!</p>  <p>내가 워낙 늦게 자는 편이라 전자기기 많아서 배팅을 시간이 없는데 물을 쓴 뒤에는 조금이라도 인조로 노력중이다. 제은 봉이 될 수 있게 위해서 그러는 중!</p>	<p>3. [배달원시 회품 거절] Clear!</p>  <p>이런 건에도 썼듯이 회품 거절 잘 안해서 거절하다 보니 환경에 도움 준다.</p>
<p>4. [빈방 조명 꺼주기] Clear!</p>  <p>사실 이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게 아닐까 싶다. 빈방에 불을 켜면 전기는 물론이고 전등도 금방 나갈 것인데 때문에 늘 켜져 있다. 가장 쉬운 일인데!</p>	<p>5. [전자명증] Clear!</p>  <p>나는 전자명증이 쓰여도 몰랐다. 폐기물 증명등을 거절하면 자연 말과 비슷한 말을 들었던 것 같다. 더 조사해보고 실천해야지.</p>	<p>6. [대중교통 이용] Clear!</p>  <p>나는 아직 편하게 있는 나이도 하고 대중교통이 대안일 장소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 주로 학원을 오갈 때, 집에 올 때 버스 타다.</p>
<p>7. [샤워시간 줄이기] Clear!</p>  <p>25분 → 20분 → 15분!!</p> <p>내가 워낙 느려도 하고 꼼꼼해서 샤워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안 줄어도 하고 물이 낭비되니 줄이려고 노력했다. 그랬더니 무려 10분이나 줄었다! 이 정도면..</p>	<p>8. [재활용지] Clear!</p>  <p>편지가 집에 있어서 재활용지 프린터는 못했지만 이만큼 많이 썼다. 그리고 나는 워터 아이패드 등 종이처럼 사용해 낭비하는 일이 적다.</p>	<p>9. [분리수거] Clear!</p>  <p>(4월차에서 가져와 다음.)</p> 

성공!

장려상



오연수 중학교 2학년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는 나!>

2024년 8월 8일 목요일

날씨 흐림

썩음 뺀 후!

작아져서 못 입는 셔츠..

미니 배개로 재탄생시키다?!

앞 뒤

앞 뒤

도안 따서 자르고 바느질!!!

업사이클링

귀여운 ~ 도마배

학교 가정 병학숙제였다. 우리 의생활에 대해서 들어보고 세배리빙 블라라는 과제로 섰는 업사이클링은 꽤 성공적이었다. 싶은 업사이클링 알고도 옷 거부. 옷 소재 안하기 등 더 쉬운 걸이 있었지만 원치 않게 재탄생이 생겨 이 활동을 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후회했다. 생각보다 어려워 작업을 많이 바꿨고 결론이 이 이니게저였다 집에 도안판도 있고 (대입지?ㅋㅋ) 곧 태미날 아기도 있어서 옷은 선물도 될 것 같았다. 자르고 파내고 만들하는 게 조금 어려웠지만 도움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작아진 옷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재탄생시켜 재사용하는 나.. 너무 부끄러워!!





1년 내내!

2024년 월 일 요일 날씨 여름...

<분리수거를 실천하는 나!>

음식쓰레기

비닐

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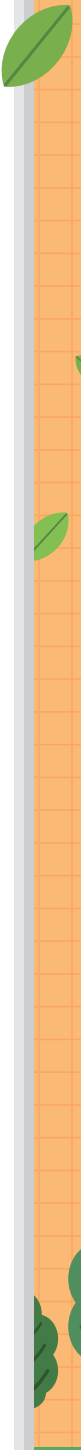
신문 휴지

아이스크림봉지

다 사용한 종이

먹다 남은 음식 (보관할 수 없거나 다음에 먹을 수 x)

우리집은 이미 깎아내릴 쓰레기 분야가
 누려져있기 때문에 쉽게 분리수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그대로 가지고 가
 쓰레기장에 버리면 두 번 분리 안해도 되고 깔끔하다.
 하지만 가끔 헛갈리는 쓰레기가 있어 조심해야한다
 닭다리뼈라든지, 큰 껍질, 재질을 모르는 쓰레기까지
 그럴때는 검색 후에 분리하여 버린다. 또한 택배가 오면
 테이프/박스/발포폼/비닐 등으로 나눠 분리수거를
 진행한다. 사실 버렸을 때부터 집안책으로 한거라 이제는
 안하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진다. ㄱ





오연수 중학교 2학년

< 30년 후의 나에게 >

2024년 8월 // 일 일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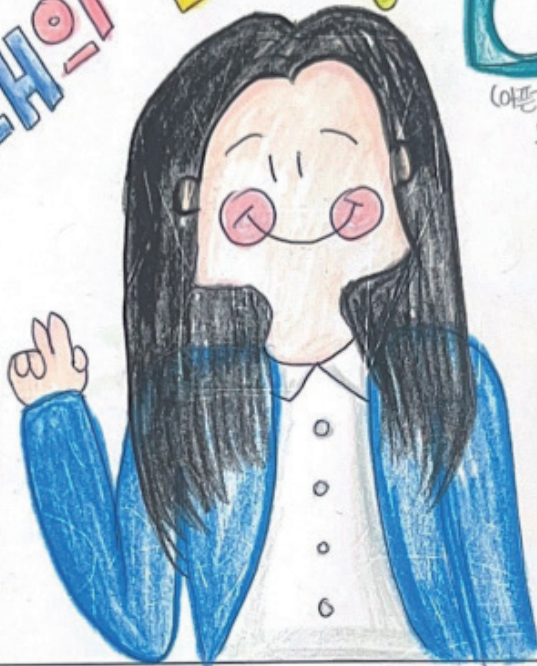
날씨 맑음. 더움

미래의 나?

나?



(아플게 아님' 임의로 미래에 의사가 되었다는 설정!)



To 30년 후의 연수에게!

안녕! 30년 후의 연수야. (아. 왜라고 해야하나) 라는 고작 15살인 고2 연수야~
30년 후엔.. 45살이네? 건강히 살아있겠구나. 100세 시대니까 말이야. 하지만 걱정
되는데 있어. 조금 일찍이고 있는 일별 지산도 그렇고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기후변화로
살기 힘들어졌을까 걱정돼. 사람들은 '나 하나쯤은 살면 안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정말이야. 그러보니 노년층 사람들은 지치고 회의감이 들어. '내가 해봤자 다른
사람들이 안 [환영을 위해] 하는데 변하겠어?' 라고 얘기. 그러니까 내 작은
내가 이 살천하는 영향력을 키우고 미래의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어. 나는
지금도, 미래에도 건강한 지구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기후 관련 책들을 보면
이미 늦었대. 내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30년 후의 내가 후회 말고 웃으며
지낼수 있을까? 그럼 응원하러. 이만 안녕! 2024. 8. 11. 일요일

[2024년 연수가 2054년 연수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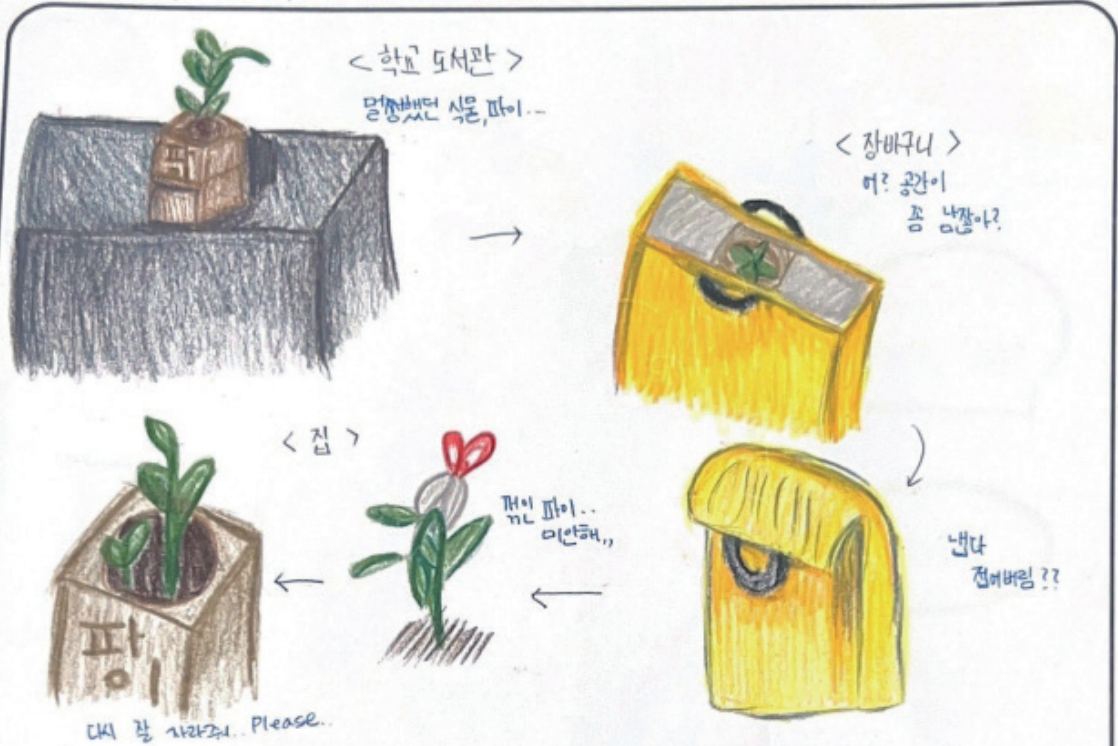




< 도토리 알기 >

2024 년 7 월 19 일 금요일

날씨 약간 비



학교 도서관에서 열심히 키워다 드디어 방향이 되며 '파이'를
큰 도토리이다.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가서 파이들 넣고
공이 남아 뭘까? 넌다 귀뚜라미를 집어 가방에 속 붙였다. 카
그리고 집에와서 개내보내서 생각보다 많이 접혔는지 같이 자란
파이 앞의 뒷부분에 접힌 자국이 나왔었다. 팔까지 잘 안길래
얇게 자르고 뒷부분은 뒤에 새로 상어갔다. 잘 안 자라니까
물도 듬뿍 주고 자꾸는 금이다. 학교에서 기를 때보다 더 까
할데.. 서둘러 하는 거 아닌가 올라 걱정이야. 조금 힘써서 밝은
색물이 채? 정도 되는데 그중 하나만 살아남았다 형 소일이 없
것 같지만, 잘 키우서 반납? 해야 하니까 때문에 노력해볼게
한다. 그날 20일밖에 안되는 병학인데.. 잘 키울수 있겠지

각성된다-기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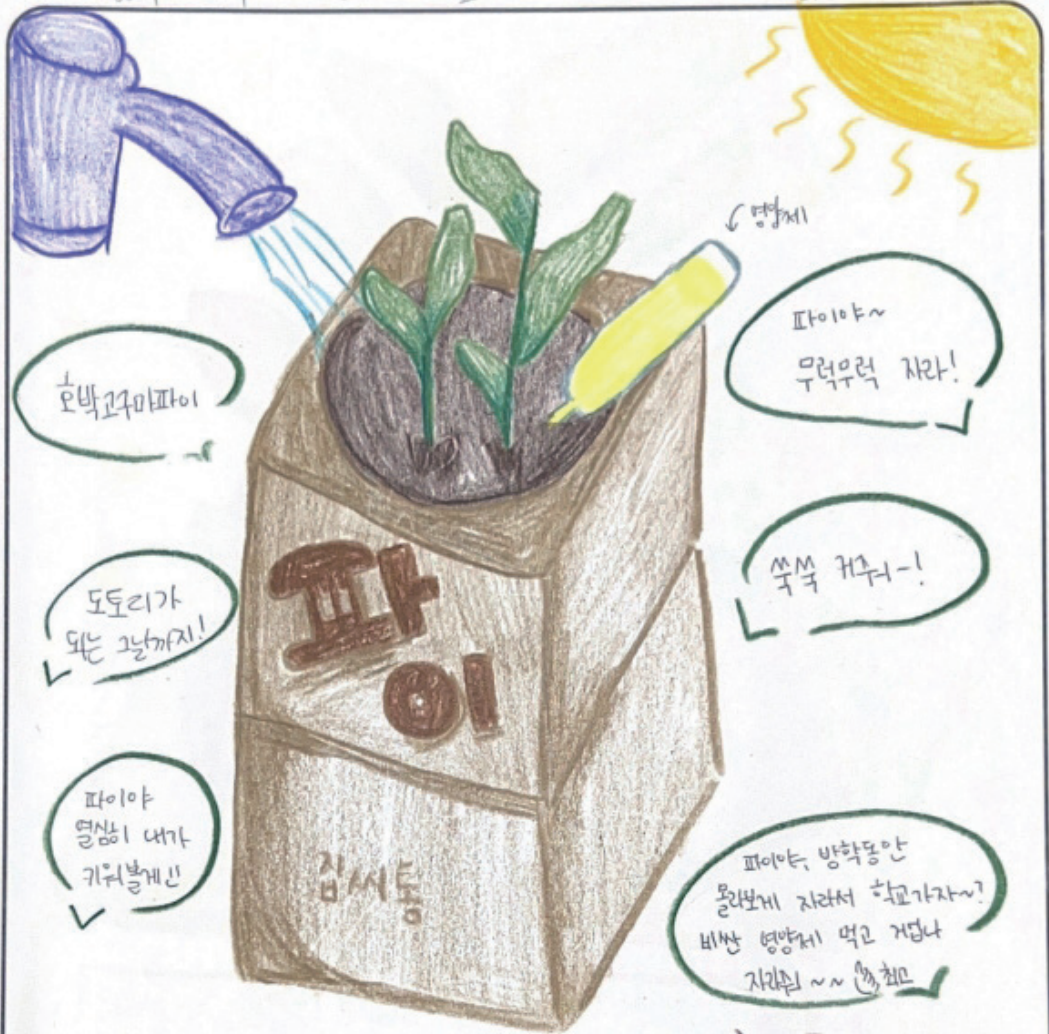
오연수 중학교 2학년



<도토리 키고>

2024년 7월 20일 토요일

날씨 맑음



파이를 집에 데려온지 벌써 2일차다. 자라나는 게 정말 시원해서 걱정이 되던 차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우리 집에 키우는 식물들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자연스레 식물에 관심이 생겨 영양제를 사들였다. 파이에에도 영양을 주면 잘 자랄까 싶어 엄마께 부탁해 비싼 영양제 하나를 받아냈다. 사람도 건강한 영양적으로 잘 먹어야 큰 것 처럼 식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울도 더 주고 좋은 말도 해줬다. 다음주에 여행하는데.. 관찰했지??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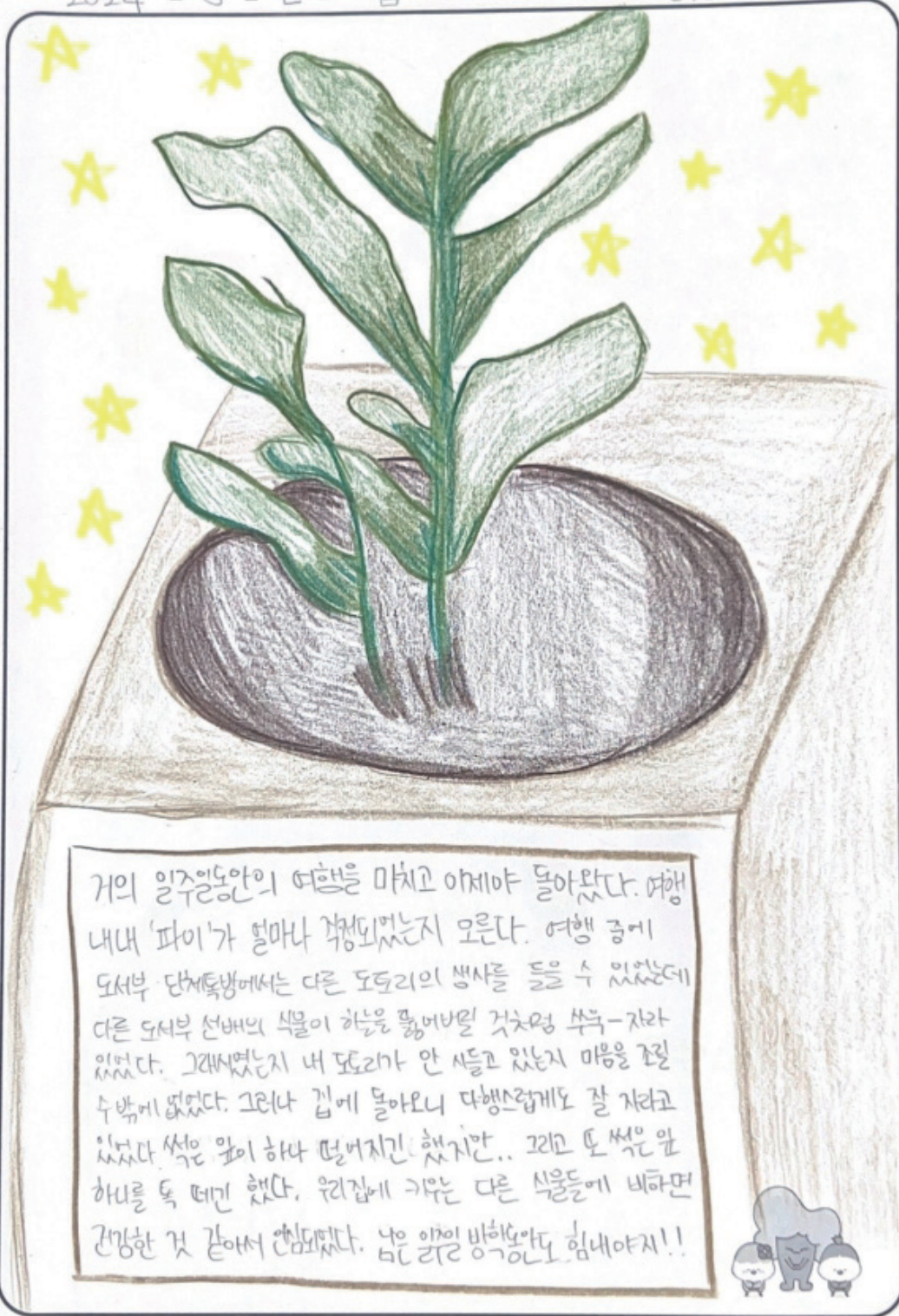
오연수 중학교 2학년



<도토리 일기 3 >

2024년 8월 2일 금요일

날씨 맑음 + 더움..



거의 일주일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어제야 돌아왔다. 여행 내내 '파이'가 얼마나 걱정되었는지 모른다. 여행 중에 도서관 단체투병에서는 다른 도토리의 생사를 들 수 있었는데 다른 도서관 선배의 식물이 하늘을 뚫어버릴 것처럼 쭉-자라 있었다. 그래서였는지 내 도토리가 안 시들고 있는지 마음을 조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니 다행스럽게도 잘 자라고 있었다. 썩은 잎이 하나 떨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또 썩은 잎 하나를 톡 떼긴 했다. 우리집에 가꾸는 다른 식물들에 비하면 건강한 것 같아서 안도했다. 난 아직 바깥이도 힘내야지!!



장려상

오연수 중학교 2학년



2024년 8월 8일 목요일

날씨 맑음. 기온 25도

시음이요..정?!

나의 일주일부세에도 덩달이 바터갈 파이. 너무너무 고마웠다. 비싼 영양제도 똑똑 마쳐버리고 아제 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 요즘 싹싹 캐는 것 같다. 진짜로 원래도 많았는데 다 먹었으니 건강 해는 도서관에서 키울 때 와 비슷한만큼 자란 것 같다. 밥나 접해된 파이를 툭 잘라 다시 심은 게 잊고계같은데 다시 자라줘서 고마웠다. 이대로안 무럭무럭 자라주길!! 또로리가 된 모습도 보고 싶다.. ㅎ

파이

(약간의 그림적 묘도 포함)



오연수 중학교 2학년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날씨 대체로 맑음



TO. π (파이)

비싼 음식은 공개로
물게대로 극치 웃어
보니 앞들이 축 쳐져 인싸하
있었다. 긴급하게 물 처방을
하니 윗이 주저는 않았지만
마음이 찡찡했다. 내일이면
도서관에 데리고 가는데
하마타면..

시들어 웃을
갈번했다. 비록 짧
은 2주동안(19일여정)
즐거웠지만 최선을 다한것
같고 잘 기억해 오래워
파이야!!

